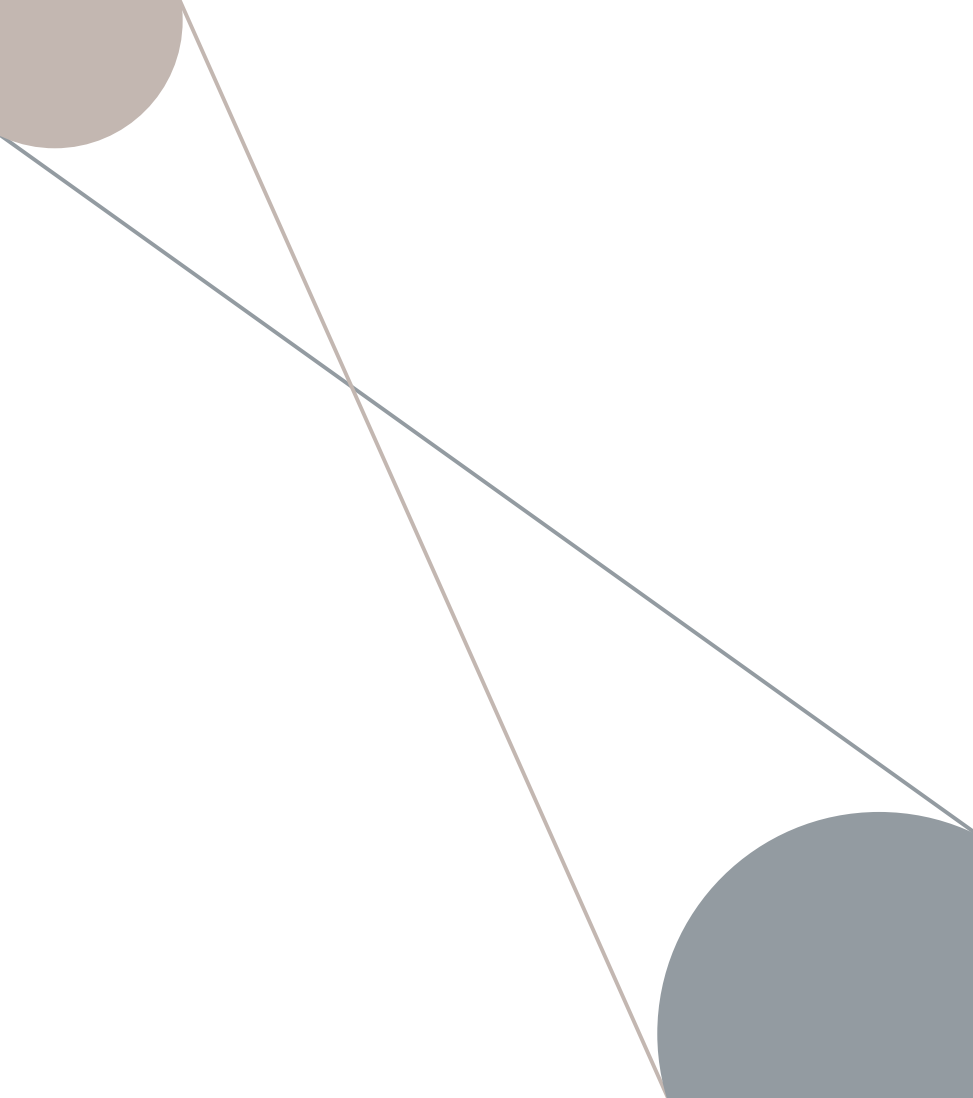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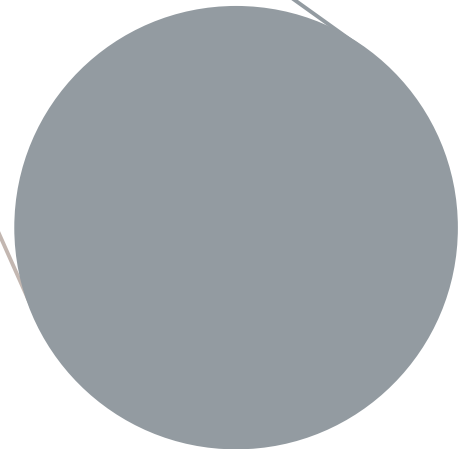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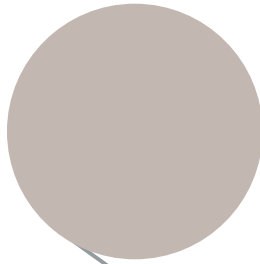


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전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Lee Younghee  
이영희

Park Jaehwan  
박재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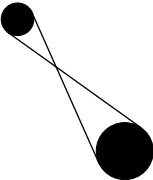


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전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청년작가 박재환 Park Jaehwan  
중견작가 이영희 Lee Younghee

2014. 9.26 ~ 11.02  
김중업박물관 Kimchungup Museum

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전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  
Park Jaehwan  
박재환

-  
Lee Younghee  
이영희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 필 윤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Chairman of the Bord **Lee Philwoon**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지원전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지역 작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되신 이영희, 박재환 작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지원 사업 부재와 전시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척박한 창작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시각예술 지원사업의 값진 결과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지역의 유능한 청년작가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 오랫동안 묵묵히 창작의 길을 걸어온 중견작가의 사기를 진작시켜 창작욕을 고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작가들이 문화예술의 도시 안양에 주목하여 안양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의 미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holding of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considering it very meaningful.  
I want to thank the local artists who applied to the competition and congratulate artists Lee Younghee and Park Jaehwan who were selected for the event.  
This art exhibition put on by the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is an invaluable outgrowth of the visual art support project. The foundation is working hard to improve the creative environment for local artists who have trouble in finding exhibition space due to a lack of support and concern.  
I hope this exhibition will be a meaningful event that contributes to discovering and fostering competent young local artists and inspiring the creative aspirations of mid-career artists. I also expect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invigorate the Anyang art scene and enhance the level of local art.  
Wishing you and your family health and happiness, I am deeply grateful to everyone involved for doing their best for the preparation of this exhibition. Thank you.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 재 천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CEO **Roh Jacheon**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지역미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을 개최합니다.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된 중견작가 이영희, 청년작가 박재환의 신작이 새롭게 개관한 김중업박물관의 전시실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의 청년작가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작업해온 중견작가들을 격려하고자 만든 지원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2월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된 두 작가는 약 6개월간 설치·드로잉·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제작하였습니다. 중견작가의 원숙한 창작세계와 청년작가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창작결과물들은 본 사업의 취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안양의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전시에 임해 주신 선정 작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안양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요람이자 안양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presents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in order to energize local art culture. New works by mid-career artist Lee Younghee and young artist Park Jaehwan that were selected by prestigious judges through their impartial screening will be on display at the newly founded Kimchungup Museum in Anyang.  
This exhibition is the result of a supporting project carried out to discover and sponsor young local artists and encourage experienced artists who have consistently worked for long years. The two artists chosen through a competition last February have produced works in varying media including installation, drawing, and video. Their works demonstrating the experienced artist's mature world and the young artist's experimental spirit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art and culture in Anyang.  
I am truly grateful to those involved for their hard work preparing this exhibition and the selected artists for their endeavors. We at the foundation will increase our efforts to promote Anyang's culture and art and create a cultural space for the citizens of Anyang. Thank you.

청년작가



Park Jaehwan

박재환

길을 걷다가, 10미터쯤 앞에 놓인 납작한 검은 물체를 보았다. 나는 그게 뭘지 궁금해 하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는데, 아마 차 문짝일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물체 가까이 이르러 보니 그건 납작하지도 검지도 않은 쓰레기 봉지였다. 10미터 전에서 무엇이 차 문짝의 이미지를 만들었을까. 무상無常이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화함을 말한다. 사물의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오래 전 멀리 떨어진 쓰레기 봉지를 보고 검은 문짝이라고 착각했던 경험도 단순한 환상이 아닌 사물의 한 단면을 본 것일 수 있다. 이 단면이 사라지고 다른 단면이 나타나기 전까지 유지되는 기간이 (시간의 지속성을 부정하는 무상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규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중력, 부력, 자력, 바람, 부화 중인 새알의 무게 균형 등, 인과 연에 의해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검은 막대」(2014)의 지속성은 인간의 머릿속 환상의 양 저울 사이에서 흔들린다. 이 저울에서 사물의 탄생과 소멸이 결정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랜디 존슨이 던진 공에 지나가던 새가 맞는 유명한 영상은 제행무상 諸行無常의 이치가 물리적 혹은 조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로 이번 작업들을 구상하게 된 계기이다. 강력한 인因에 의해 새는 깃털과 고깃덩어리로 분리되어 깃털은 날아가고 고깃덩어리는 바닥에 나뒹군다. 누가 랜디 존슨의 역할을 하며, 던져진 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떨어진 새는 바닥을 기어 다니며 형체가 일그러져 벌레 같은 형상과 새의 형상을 넘나든다. 땅으로 끌어내려져 고문당하는 현세대 한국인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 나느냐 기느냐의 선택의 권한이 없다. 다만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설새 없이 형태를 바꾸며 강제에 의해 제법무아 諸法無我的 이치를 실행한다.

도심 속 비둘기와 바퀴벌레의 삶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둘 다 먹이를 찾아 땅 위를 뛰어다니고 거대한 발에 치이며 이리저리 피하느냐 숨느냐의 차이일 뿐. 삶의 방식이 같아 정체성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삶의 무게를 정할까. 비둘기의 삶과 바퀴벌레의 삶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많은 사람들이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이 집단은 사회적 합의와 인류의 집단적 환상에 의해 움직인다. 이 집단적 환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머리핀 구조로 되어 떼어낼 수 있는 전시장의 비둘기들은 관람자들과의 연緣에 의해 이동을 하며, 다른 장소에서 다시 형태를 만들거나 제각각 흩어진다. 새의 모습으로 혹은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무리에 속하거나, 새의 모습으로 혹은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While walking along the street, I found a black flat object that lay ahead of me by about 10 meters. I thought it could be a car door. When I reached the object, I found it was a garbage bag that was neither flat nor black. Why did I conjure up the image of a car-door when I was away from this object by roughly 10 meters.

Impermanence is the term that expresses the notion that all is transient or in a constant state of flux. If the true nature of a thing is not predetermined, my illusion that a garbage bag is a black car door was not a mere illusion, but a side of the thing I noticed. Although the period between one side and another side appearing newly is a violation of the concept of impermanence, it could be a way to define things. The continuity of *Black Stick* (2014) whose form is maintained by cause or connection among gravity, buoyance, magnetic force, wind, and weight balance is shaken between illusory scales in human minds. Birth and death of things and the direction of life is determined by these scales.

I was inspired by the well-known video of Randy Johnson hitting a bird with a baseball. This video can be a physical representation of the doctrine that whatever is phenomenal is impermanent, or all formations or conditioned things are impermanent. A bird is separated into a lump of meat and feathers by a strong causation: feathers fly away and the lump of meat falls down to the ground. Who plays the role of Randy Johnson and what meaning does the thrown ball have? The fallen bird crawls on the ground in a deformed form that turns to a worm or a bird. Contemporary Koreans have no right to choose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crawling or flying. They incessantly turn their forms, practicing the doctrine that there is nothing in the whole universe that has a permanent self-entity or self-nature.

The life of a dove in a city is little different from that of a roach. They are both feeding from the ground, evading or hiding themselves. If they depend on the same way of life and have no identity, in what way can we decide the weight of their lives? Which one – between the life of a dove and that of a roach – is of more weight? Many belong to a group, and the group acts depending on social consensus, or our collective illusion. Where did this collective illusion derive? In the gallery pigeons detachable from the wall are moved or scattered by connections with viewers, generating another shape in a different place. They belong to a group or exist independently whether they appear as a bird or a roach.

인식에 관한 조형적 실험  
정현 (미술비평)

박재환의 작업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값싼 재료로 재구성된 브리콜라주 작업을 로우테크Low-tech를 활용해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낸다. 전시장 입구에서 관객을 맞이하는 「바퀴벌레」(2014)는 영상과 키네틱 작업으로 구성된 설치 작업으로, 작가는 강력한 인, 혹은 업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피할수 없는 이 업은 이 세상에 서 가장 운이 없는 비둘기 한 마리가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아 부서지는 발체 영상 장면으로부터 출발한다. 작가는 비둘기 깃털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에서 ‘바퀴벌레’ 또는 바닥에서 기어 다닐 운명으로 탄생한 곤충의 모습을 떠올렸고 이 장면은 곧이어 돈과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우리의 자화상과 오버랩한다.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경쟁을 펼치듯 바닥에서 최선을 다해 움직이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형국은 성공을 향해 앞을 향해 질주하는 현대인의 삶을 비유한다.

이처럼 이번 전시 〈바퀴벌레〉는 상호적 관계가 사라진, 성공을 향한 경쟁사회에서의 개인을 비유한다. 최근 좀비 이론이 하위 인문학에서 흥미롭게 연구되는 주제인데, 일본의 오타쿠와 달리 좀비는 살아있는 송장과 같다. 트와일라잇 시리즈처럼 주기적으로 회귀하는 좀비서사는 게임, 영화, 드라마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중이다. 무엇보다에 이처럼 산송장이 되어버린 좀비렙들이 출현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화적 현상 속에는 시장경제와 소비 중심으로 이뤄진 신자유주의 이념이 숨어 있다. 신자유주의 가치관은 실제 장소와의 관계, 문화적 맥락을 점점 희미하게 지워버리고 결국은 탈영토화한다. 좀비는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조건으로부터 이탈한 비체abject이다. 좀비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비체들은 영토 안에 기생하지만 영토와 관계를 맺지 않고 생존을 위한 맹목적 욕구만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 담론에서 공동체 문화, 관계의 미학을 강조하는 까닭도 이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알궂게도 이러한 담론이 실천되기보다는 대안적 가능성으로 부풀려져 오히려 부조리한 실재를 가리는 스크린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잦다. 박재환의 바퀴벌레는 함께 살아가지만 관계가 사라진 비체와 같다.

이번 전시에서 박재환은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한다. 「비둘기와 바퀴벌레의 무게」(2014)는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 된 비둘기 사체와 깃털을 각기 다른 실험관 안에 넣은 뒤 이들의 무게를 비교한다.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발작하는 저울의 움직임과 소음은 살아남기 위해 자아를 버려야만 하는 존재의 마지막 발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설치 작업 「식탁의 역사」(2014)는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 개념에 ‘움직임’이라는 차원을 덧붙인 4차원의 작업이다. 식탁 위에 놓인 검은 식탁보의 모서리를 번갈아가며 잡아당겨지는 반복적인 상황을 만들어, 식탁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능적 교감을 연출하고자 했다. 「식탁의 역사」는 박재환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받은 인상을 오브제와 움직임을 이용해 연극적인 상황으로 풀어낸 작업이다. 작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사유는 지각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사유와 거리가 있는 듯하다. 오히려 작가는 위의 관심을 개인의 ‘환상’에 집중한다. 여기서 ‘환상’은 죽은 영혼을 지시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론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는 존재의 흔적을 재현하거나 묘사하기보다 「식탁의 역사」처럼 연극적 상황으로 제시한다. 이 같은 조형적 연출은 인간 중심의 시각을 사물 중심의 시점으로 이동시킨다. 박재환 작업의 특징은 서사의 제거에 있다. 사물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연극적 상황은 관객의 개인적 상상력을 유도하는 장치인데, 이러한 장치를 통해 우리는 작가의 불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전 개인전 〈보이지 않는 건축 : 에워싸지엄〉(2011)은 인간중심의 시점으로부터 이탈하고자하는 의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전시였다. 에워싸지엄Erussisom은 불어로 곰팡이moisire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변용한 조어로, 작가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새로운 세계에 이름을 부여한다. 이 세계는 곰팡이균을 배양하는 실험실처럼 연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발견한 미지의 세계가 바로 부패한 물질 위에 균들이 기생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박재환는 생생과 소멸이란 명제를 뫼비우스 띠처럼 엮어 생명의 단절이 또 다른 생명으로 연장되는 과정을 주목한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연상시키는 작가의 세계관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

지 않는 것에 의해 존재를 밝힐 수 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듯하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삶을 주도한다고 믿는다. 「검은 막대」(2014)는 기계학적 구조물 안에 생물학적 실험 장치를 조합해 생명의 신비가 (비가시적 인) 힘에 의해 나타난다는 작가의 사상을 구체화한다. 작업은 자석, 풍선, 선풍기, 적외선 등으로 구성된 두 개의 구조물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막대가 세워져 있고 한 구조물 안에는 알이 담긴 동지를 설치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자기력, 중력, 부력, 공기, 열, 빛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은 검은 막대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기계이자 알이 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계이기도 하다. 이 브리콜라주 작업은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작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박재환의 작업은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에 기반하고 있지만 작업의 의미가 나타나는 지점은 비물질적 요소들 – 소리, 빛, 움직임 등 – 에 의해서다. 작가는 일상 속 사적/공적 기억, 우연한 사건, 현대 사회의 미디어 환경 등으로부터 작업의 단초를 발견한다.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읽어내는 시적 작가는 어쩌면 보편적인 창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작가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같은 보편적 시각을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로 펼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작가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불교 사상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양식이자 인식의 틀일 것이다. 이 인식의 틀이 갖는 미학적 완결성을 위하여 작업이 이러한 사상관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퀴벌레〉는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 많은 현대인들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변주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 것만 같다. 그러다보니 각 작업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조형적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여러 개의 일화를 나열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러한 점이 문제라기보다 이제부터 작가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Formative Experiments with Perception  
Jung Heon, Art Critic

It is not easy to sum up Park Jae-hwan’s work. In his bricolage made of inexpensive materials, he creates recurring movements using basic technology. <The Cockroach> (2014) on exhibit at the entrance of the venue is an installation comprised of video and kinetic work. This work is a projection of a solid cause or karma. This unavoidable karma is implied by a video in which a most unlucky pigeon is hit and broken by a ball. Park conjures up an insect that was born with a destiny to crawl on the floor, featuring the pigeon’s scattered feathers. This scene overlaps with portraits obedient to money and power. As if playing tug-of-war, the image suggestive of a roach that struggles to move across the floor but is stuck is a metaphor for a contemporary human striving for success.

As such, this work likens a cockroach to individuals in a competitive society where mutually amicable relations have disappeared. Recently, theories on zombies have been intriguing themes in the sub-humanities. Unlike otaku (a Japanese term for people with obsessive interests), a zombie is an animated corpse. Like the Twilight series, narratives on zombies are being constantly reproduced in games, films, and television dramas. Why are zombies often adopted as a motif? Hidden in this cultural phenomenon is the ideology of neoliberalism centering on market economy and consumerism. Neoliberal values gradually erase the relation with actual places and cultural context, causing deterritorialization. Zombies are abject beings deviating from social context and cultural conditions. They cannot form a community. They are in a territory but have no connection with the territory and try to meet their blind desires for survival. That is the reason why community culture and relational aesthetics are emphasized in recent cultural discourse. Ironically, such discourse is often used as a screen to cover an absurd reality. Park’s roach is like a disconnected being with which we must live.

In this exhibition Park mercilessly lampoons realities full of contradictions in diverse ways. In

The Weight of Pigeon and Cockroach (2014) he compares the weight of a pigeon’s body applied with antiseptic treatment with that of its feathers, after containing them in different test tubes. The hands of the scales that shake and generate noises as if suffering obsession, feel like a frantic last-ditch effort one might make to survive. In History of the Table (2014), a four-dimensional installation work lending movement to the concept of Marcel Duchamp’s readymade, Park intends to bring about sensual appreciation, creating a situation in which the four corners of a tablecloth are repetitively pulled in turns. Inspired by a film scene, in this work Park interprets the film scene with an object and its movement, creating a theatrical situation. The artist is interested i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His idea seems different from any phenomenological thought underlining perceptual experience.

Park rather concentrates on an individual’s “illusion”. The illusion here stands for an invisible being’s ontological value. He presents a being’s trace in a theatrical situation rather than representing or depicting it. This rendition moves the human-centered point of view to the thing-centered point of view. Park’s work is characterized by the removal of narratives. A theatrical situation formed by movements of things is a device arousing each individual viewer’s imagination, suggesting his Buddhist view of the world. In the exhibition <Invisible Architecture : Erussisom> (2011), he strongly demonstrates his will to escape his anthropocentric perspective. “Erussisom” is a French coinage made from “moisisure” (mold). He lends a name to a new world like an explorer who discovered a new continent. This world is produced like a laboratory where mold is cultivated, since the unknown world he discovered is a “place” where fungus grows.

Park pays attention to a process of prolonging life by weaving themes of creation and extinction like the Möbius strip. His world view, harking back to Buddhist incarnation seems based on an

assertion focused on the hypothesis that being can be disclosed with the invisible, not the visible. He believes life is led by the invisible, not the visible. In Black Stick (2014) he concretizes his idea that the mystique of life can be represented by (invisible) force, combining a mechanical structure with a biological experiment apparatus. In this work an unidentified black stick stands between the two structures made of a magnet, balloon, electric fan, and infrared rays. A nest with an egg set in a structure suggests that life can be maintained by “invisible power”. Air, heat, light, and forces such as magnetic force, gravity, and buoyance are the mechanisms that make the stick float in the air, or the mechanism of possibility that makes the egg hatch.

This bricolage work stresses that what’s necessary for a life form’s birth and survival is not the visible or the material but the invisible. Although Park’s work is based on installation of diverse objects, its meaning is presented with immaterial elements such as sound, light, and movement. He discovers the motifs of his work from private and public memories in everyday life, chance events, and multimedia surroundings in a contemporary society. Any poetic perception through which one reads the mystery of the universe in the austerity of daily life can be perhaps a universal form of creation. If so, what he has to consider seriously is how he can unfurl his intrinsic world with such universal perception. The Buddhist thought, by which his world-view has been influenced, is a mode or a frame in which he views the world. His work seems to be a means to verify such a worldview.

<The Cockroach> seems to display an excessive concentration on repetitive variations of the circumstances of contemporary people who could not become the subjects of any decision. As a result, each work has little connection or harmony. His works seem to convey a few separate narratives. Overcoming this is perhaps an important assignment his upcoming work has to carry out.

박재환 Park Jachwan  
www.studiowheel.com

학력

**2008-2009** Ecole supérieure des arts, Saint-Luc de Bruxelles (조형시각공간예술학위), 벨기에  
**2005-2008** Ecole supérieure d'art de Mulhouse (국립 조형예술학위 최우수졸업), 프랑스  
**2004-2005** Strasbourg Marc Bloch 대학 Diplôme Universitaire CINEMA ET AUDIOVISUEL à l'U.F.R. ART, 프랑스  
**1997-2003** 동아대학교 외국어문학부 불어불문학과 졸업

개인전

**2014**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바퀴벌레〉, 김중업 박물관, 안양  
**2013** 〈툼〉, 안양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안양  
**2011** 〈물체에서 공간으로〉, 홍은예술창작센터, 서울  
〈보이지 않는 건축 : 에퀴시지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단체전

**2014** 〈생명은 아름답다〉, 예울마루, 여수  
**2013** 〈생활의 온도〉, 갤러리 아쉬, 파주  
〈생명은 아름답다〉, KAIST KI B/D, 대전  
〈섬세한 문제-한일교류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드로잉비엔날레 : 드로잉, 생각의 시작〉, 갤러리소소, 파주  
**2012** 〈브레인 : 뇌 안의 나, 사비나미술관〉, 서울  
〈공장미술제〉, 선셋장항페스티벌, 서천  
〈책상 위의 한 선정은 결국〉,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1** 〈미술이 말하는 ECO〉, 무안군오송우미술관, 무안  
〈지도는 말을 한다〉, 아트라운지 디방, 서울  
〈몹쓸 낭만주의〉, 아르코미술관, 서울  
〈무빙 이미지 번역 서비스 사무소〉,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0**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문신미술관, 서울  
〈현대미술 영상 & 설치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교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08** 〈도시의 빛〉 3인전, 스트라스부르 시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생-루이 시청, 프랑스; 코라 문돌스하임, 문돌스하임, 독일  
**2007** 〈필르메 언 알자스〉, Le Patio UMB,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수상 & 선정

**2014** 안양문화예술재단 Line up Artists in ANYANG  
**2013**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별벌예술프로젝트  
드로잉비엔날레 DMZ 헤이리 공모

**2011** 구글 아트 프로젝트II 한국작가 98인 선정, 사비나아트 프로젝트 공모  
아르코미술관 전문가 성장프로그램  
**2010** 뉴 워크, 기획전 공모  
**2008** 프랑스 로타리 미술상  
**2007** 프랑스 필르메 언 알자스 젊은 작가상

레지던시

**2011** 홍은예술창작센터 장기 입주  
**2010**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장기 입주

EDUCATION

**2008-2009** Ecole supérieure des arts, Saint-Luc de Bruxelles, Belgium  
(Bachelier en arts plastiques, visuels et de l'espace)  
**2005-2008** Ecole supérieure d'art de Mulhouse, France  
(Diplôme Nationale d'Art Plastique, Félicitations du jury)  
**2004-2005** Marc Bloch University, Cinema and Audiovisuel à l'U.F.R. ART, France  
**1997-2003** Dong-A University, French Languages and Literatures, Korea

SOLO EXHIBITION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 The Cockroach, Kimchungup Museum, Anyang, Korea  
**2013** Interstice, Pyeongchon Underground Passage, Anyang, Korea  
**2011** Objects to space, Seoul Art Space Hongeun, Seoul, Korea  
Invisible Architecture: Erussisiom,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GROUPEXHIBITION

**2014** Life is very beautiful, Yeulmaru, Yeosu, Korea  
**2013** Temperature of life, Gallery H, Paju, Korea  
Life is very beautiful, KAIST KI B/D, Daejeon, Korea  
Delicate Issue,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Drawing Biennale : Drawing, Birth of Thinking, Gallery Soso, Paju, Korea  
**2012** Brain,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The Art Factory, Sunset Janghang Festival, Seocheon, Korea  
Project Hansunjung, Insa Art Space, Seoul, Korea  
**2011** Eco, Muan Seungwoo Oh Art of Museum,

Muan, Korea  
Maps talk, Art Lounge DIBANG, Seoul, Korea  
Bad Romanticism, Arco Art Center, Seoul, Korea  
Moving Image Translation Service Agency,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2010** I didn't do anything, Moonshin Museum, Seoul, Korea  
Contemporary Trends Video & Installations 2010,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Korea  
Exchange,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2008** Lumières dans la Ville, Hôtel de Ville de Strasbourg, Strasbourg, France; Hôtel de Ville de Saint-Louis, Saint-Louis, France; Cora Mundolsheim, Mundolsheim, Germany  
**2007** Filmer en Alasce, Le Patio UMB, Strasbourg, France

AWARD / SELECTION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Korea  
**2013** Art Project Fellowshi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Korea  
Drawing Biennale DMZ Heyri, Korea  
**2011** Google Art Project II - 98 artists of Korea  
Savina Art Project, Korea  
Arco Art Center Young Artists Critic Workshop, Korea  
**2010** New Work Project 2010-2011, Korea  
**2008** Prix des Arts du Rotary, France  
**2007** Filmer en Alasce sélection du prix jeunes talents, France

RESIDENCY

**2011** Art Space Hongeun(www.seoulartspace.or.kr), Korea  
**2010** Cheongju Art Studio(www.cjartstudio.com), Korea



비둘기 떼, 2014 제작 디지털 스케치 Pigeons, 2014 Preparatory digital sketch





비둘기 떼, 2014  
PVC필름에 판화, 나사못, 집게 핀  
가변크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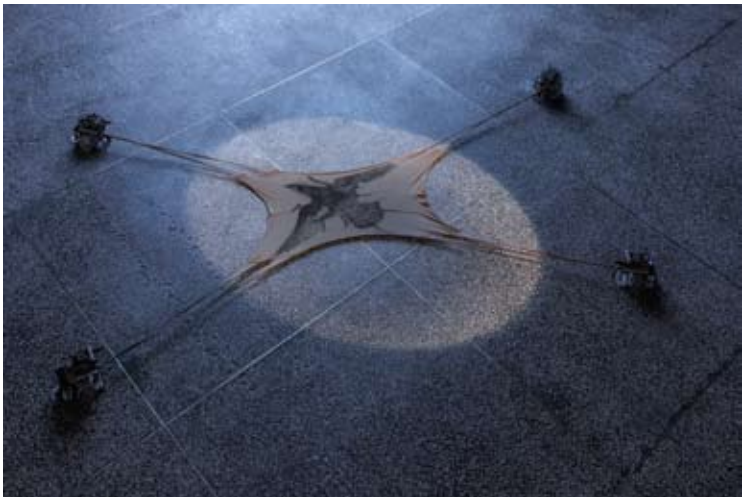
*Pigeons, 2014*  
Print on PVC film, screws and hairclips  
Dimensions variable



랜디 존슨의 새 폭파, 2014  
투 채널 비디오  
반복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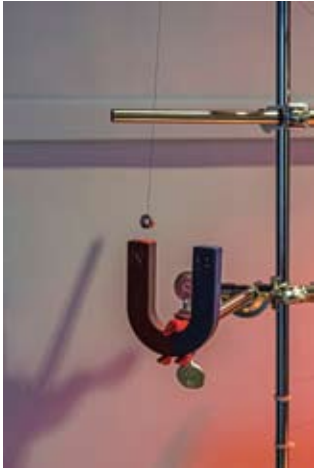
*Randy Johnson hits bird, 2014*  
Two-channel video  
Loop play





바퀴벌레, 2014  
스타킹에 유성펜과 수채화, 모션 센서, 모터 등 복합재료  
가변크기

*The Cockroach, 2014*  
Watercolor and permanent pen on stockings,  
motion sensor, motor a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검은 막대, 2014  
부분

—

*Black stick, 2014*  
Detail



검은 막대, 2014  
자석, 봉합사, 스탠드, 클램프, USB 선풍기,  
헬륨풍선, 새 알, 새 등지, 부화용 적외선 램프,  
온도계, 양팔 저울 등 복합재료  
가변크기

—

*Black stick, 2014*  
Magnet, suture material, clamp, usb fan, helium balloon,  
bird's egg, nest, infrared lamp heating appliances,  
thermometer, scale balance a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식탁의 역사, 2014  
식탁, 검정 망사, 합사, 모터 등 복합재료  
114 × 78 × 72cm

—

*History of the Table, 2014*  
Dining room table, black lace, motor and mixed media  
114 × 78 × 72cm



식탁의 역사, 2014  
부분

—

*History of the Table, 2014*  
Detail





비둘기와 바퀴벌레의 무게, 2014  
깃털, 새 시체, 포르말린, 증류수, 유리 병, 나무, 모터, 스프링 등 복합재료  
70 × 40 × 120cm

*The Weight of Pigeon and Cockroach, 2014*  
Feather, dead bird, distilled water, glass bottle, motor, spring and mixed media  
70 × 40 × 120cm



세웅지마, 2014  
트레이싱지에 과슈, 집게 핀, 제습기, 가습기 등 복합재료  
가변크기

*Blessing in Disguise, 2014*  
Gouache on tracing paper, hairpin, dehumidifier, humidifier an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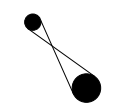


바퀴벌레, 2014  
전시광경

The Cockroach, 2014  
Exhibition view



중 권 작 가



Lee Younhee

이 영 희

**여섯 개의 점 여섯 개의 섬 :**  
**2014년 4월16일부터 6월 3일 사이**

각자의 섬들은 미세한 차이를 두고 또 다른 섬과 뒹대어진다.  
그 속에서 다시 crack, crack, crack.....  
파편들은 모여 또 다른 섬을 이어 나간다.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는 어지럽다.  
머릿글을 떼어내고 남은 같은 크기의 활자들은 깨알같이 작은 점으로 켜이며, 읽혀지기 쉽지 않은 덩어리진 집합체로 다가온다. 의도가 떨어져나간 언어의 파편들은 서로 엉키며, 마치 발굴된 파편을 덧대어보는 여러 시도들처럼 미세한 어긋남을 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섬 모양이 되어간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몇 종의 신문을 집어 들고 시간의 틈 사이 부스럭거리며 부산하게 신문을 펼친다. 나의 눈은 지면 위 활자의 위치와 크기로 배열된 의도된 의미들을 스치듯 지나, 눈길 닿는 곳 여기저기를 넘나든다. 간간히 손가락에 침을 바르며, 바스락거리는 신문의 귀퉁이를 꺾어 다음 장을 넘긴다. 구기면 그만인 활자들 일지라도 마치 사람 사는 동네처럼 그들만의 영역이 엄연히 뿌리 깊게 있다. 상하 좌우 중요도에 따라 위치를 점유한 공간들이 나뉘는 서열을 지닌 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광고는 지면의 크기와 위치로, 점유된 영토와 같이 그 중량감을 갖고 있으며, 매일의 기사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양한 시각과 기준으로 편집되어 나의 눈길을 유도한다. 또한 그 공간 하나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같은 크기의 작은 활자들이 모여 얹혀져 있으며 그 위에는 기준에 맞추어 뽑힌 제목들이 마치 사열하듯 공간을 점유하며 눈길을 붙잡는 것이다.

신문 지면의 여기저기를 누비며, 나는 이미지가 된 글들을 다시 편집한다.

어느 날은 신문을 맨 뒷면부터 펼친다. 그리고는 종횡무진, 여기저기 무작위로 눈길을 이동시키며 관심이 가는 부분들을 오려낸다. 머릿기사의 문구, 어구들을 중간이나 귀퉁이에서 자르면서, 나는 공간의 위치들을 무너뜨리고 의미들을 파편화시킨다.

이렇게 스크랩한 이미지들을 다시 섞고 덧대어 섬 그림자 같은 작업을 해오던 중, 2014년 4월 16일 나는 제대로 거대한 섬을 보게 되었다.

475명이 있었던 여객선, 그야말로 거대하고 단절된 섬은 우리 눈앞에서 바다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SNS를 통해서 전달되는 실시간 상황들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상황에 모두가 애를 태우고 있었던 그때, 잠시 잠깐이었을 것이다. 현장 상황의 보도영상, 스쳐 지나가는 영상 한 장면이 눈길을 펴뜩 사로잡았다.

“OOO 장관님 오십니다.”

“.....어쩌라고?”

극도의 긴장감과 충혈된 눈으로 내쫓는 이 파편과 같은 피

땀한 어휘는 순간 가슴을 찔다.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뿌리 박힌 의전이라니.

나는 거대한 섬의 건너편에서 또 하나의 섬 위에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꼈다. 언어의 막바지에서 맞닥뜨린 웅얼거림, 모든 언어를 씻어내는 눈물과 같은 말없음표.....

이 웅얼거림과 침묵을 듣기 위해서는 온몸을 바짝 들이대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2014년 4월 16일부터 침묵해가는 섬 아닌 섬의 기사를 가위로 오려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후 49일째 되는 2014년 6월 3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에서, 조리 있고, 문법과 일치하는 문장의 말이 더 이상 공명되지 않음을 느꼈다. 극단의 상황에서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더듬거리는 웅얼거림, 가슴 깊숙이 터져 나오는 언어의 파편들, 눈물, 그리고 꿀꺽 삼키는 말없음표..... 그것은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의도된 전략적 언어들과 얼마나 대비되었던가?

나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신문기사, 여전히 평소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문구들, 어휘의 파편들을 꾸준히 수집했다. 침몰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시간 또한 어느 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신문에 실린 일일 운세와 광고의 어떤 문구들은 시니컬한 은유로 다가오기도 했다. 나는 매일매일 이들의 어휘 중 일부를 오리고, 관련기사의 머리기사를 함께 모아, 내 속에 그림자처럼, 아니 유령처럼 떠도는 그 섬과, 대지 아래 날아오르며 드러나는 오래된 뿌리들을 만들기로 하였다. 나는 기사의 파편들을 덧대거나, 다시 찢고, 다시 덧대어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6개의 섬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여섯 개의 점, 그것은 말없음표이다.

여섯 개의 섬은 말없음표, 여섯 개의 점에 대한 은유이다.

어휘의 파편들이 뿌리처럼 둘러붙어있는 그 섬들은 날아오를 수 있을까?.....

날아오르며 다시 흩어질까?.....

흩어진 파편들이 다시 모여 또 다른 섬을 만들까?.....

나는 되물으며, 바다를 떠난 떠도는 섬들을 여섯 개의 점, 말없음표로 흩뜨려 뜨렸다.

**393자의 또 다른 말없음표**

기사를 스크랩하는 동안 나는 또 다른 말없음표, ‘전략적 말없음표’를 생각하게 되었다. 습관화되어 깨닫지 못하는 사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버린 반복의 효과들, 어떠한 의심 없이 암기된, 또는 암기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믿어버렸을지도 모를..... 일방적 듣기의 지시 언어, 여러 맹세문들의 암송 속에 말없음표를 미덕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가만히’ 침묵하여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고 가르치는 어른 아닌 어른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전략적 지시어의 반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침몰된 이성,

50대 후반, 우리는 암기세대이었다. 봉황의 권위 속에 교과서 맨 앞장 마다 실린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하고, 각종 맹세문을 암송하였다. 이제는 교과서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입에서 술술 나오는 맹세문들..... 나는 몇 자인지 까지도 중요하게 교육되었던 맹세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인터넷으로 재검색하고, 맹세문의 변천과정을 살피며, 부분적으로 사라진 맹세문 어휘들의 파편을 다시 모아보았다.

나는 명령기로 다단, 자간을 조정하고, 화면 가득 뻘뻘하게 숨 쉴 틈 없이 이 어휘의 파편들을 재빠르게 편집하였다. 마구 엔터, 엔터,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등 명령키를 쳐대며 속을 추스렸다.

만만한 편집프로그램의 명령키들은 손가락의 가벼운 두들김으로 그렇게도 쉽게 굵고, 갇다 붙이고, 오려내고, 삭제하고, 여기저기 섞고, 크기를 조정하고.....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였다. 그러는 동안 나는 가볍게 명령키를 조정하는 자이기도 했다가 한편으로는 흠어지고 모아지는 어휘의 파편이 되기도 하였다.....

늘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한글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봉황틀 속의 어휘들은 신경증처럼 재빠르게, 때로는 어수선하게, 어느 곳에서는 잠시 멍하게, 부분 삭제되거나, 냉소적으로 강조되기도 하고, 정신없이 뒤섞이다가 갑작스레 ‘핑’ 흩뜨러지기도 하였다. 또다시 나타나 자간조정으로 뻘뻘하게 붙여지다가, 서로를 밀치고, 등에 업고, 겹치며, 거대한 파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마구 출렁이는 파도로 보이기도 하고, 수명을 다하여 지지직거리는 흑백 TV 영상을 보는 것도 같았다.

기본적인 자판의 변방에 특수문자들이 있다. 나는 특수문자 앞, 옆 얼굴들을 가져다가 무수히 많은 얼굴들을 복사하고 붙이고 또 붙이고, 간격을 마구 좁혀갔다. 급기야 무수한 얼굴들은 서로 겨나고 서로 웅얼거린다. 웅얼웅얼 함께 떠다니는 수많은 얼굴들이 바다 물결에 반짝이며 출렁거린다.

이것이 환영인가?..... 나는 잠시 눈을 비벼본다.

명령어를 잘못 눌렀을 때 나오는 의미 없는 문자의 파편들. 나는 격쇠 모양의 모음들을 가져다 또한 정신 없이 붙여본다. 무수히 많은 격쇠들은 격자모양의 철조망으로 변해있다.

이것 또한 환영이었던가?..... 나는 또다시 잠시 눈을 비벼본다.

기사를 스크랩하는 동안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있었다. 올해는 살구꽃이 유난히 일찍 피었구나 라고 느낀 어느 날, 나는 특수문자, 꽃을 가져왔다. 봉황 속 어휘의 파편들 속에 한 두 개의 꽃들이 흩날리기도, 떨어지기도, 쌓이기도 하였다.

위로마저도 조심스러운 그 즈음, 수만 개의 꽃들을 모아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니, 계단에 정성껏 쌓아 올린 꽃과자 같아 보였다. 6월 3일은 49재를 올리는 날이었던가?

이것 또한 환영이었던가?.....

나는 이 모든 이미지들에 작은 점 여섯 개를 떨어뜨린다. 그것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이다.

그것 또한 환영이었던가?.....

**깃발들**

전시 장소인 안양사지는 희망과 염원을 비는 장소인 옛 절터이다.

발굴된 파편을 이어 절터의 흔적을 찾아내었듯이, 삼킨 언어, 웅얼거리며 내뱉어진 어휘의 파편들, 그리고, 자판기 위 기본 편집문자, 변방에 있는 특수문자 얼굴, 꽃, 폭탄, 말없음표..... 등을 덧대어, 축문과 같은 깃발을 만든다. 마침내 ‘말없음표’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곳에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서 바람을 타고 웅얼거리는 깃발의 소리를 듣는다. 서로의 웅얼거림에 귀기울인다. 언어 이전의 언어, 여섯 개의 말없음표는 방울방울 눈물로 떨어지며, 매끄럽고, 현란한 과잉된 이미지(언어)를 지워내며, 미세하게 떨고 있다.

**또 다른 깃발**

영상은 현대의 또 다른 깃발이다. 아주 작은 6개의 화면 가까이 몸을 들이대고 희미하게 반짝이는 픽셀들의 떨림을 확인한다. 마침내, 말없음표 6개의 이미지들이 봉황틀 속으로 느리게 흩어지고 켜인다.

말없음표가 방울방울 떨어진다. 방울들은 미세하게 번져, 이미지가 된 언어를 지운다.

6개의 10인치 모니터 영상은 각각 다른 장면을 보여 주지만, 같은 내용의 영상들이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지나간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처럼.

전시장, 영상설치 옆 벽면에는 TV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 또는 시작되기 전, 화면 보정 시간들처럼 빛 바랜 색으로 인쇄된 봉황 시리즈 액자들이 마치 확대된 칼라 픽셀처럼 무리지어 정지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헤드폰을 끼고 소리와 영상을 본다. 2014년 4월 16일에서 6월 3일 즈음, 작업실 주변에서 채집된 소리의 파편들이 영상과 함께 지나간다. 작업실 창문 틈새로 보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포크레인 소리, 블럭을 자르는 쇠 부딪히는 소리, 빠르게 지나가는 KTX, 트럭, 웅얼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작업실에 커둔 라디오의 음악과 엉겨있다.

혼재된 소리의 파편들 속에서 나는 혼자 다른 섬에서 또 다른 섬을 해제하고, 덧붙이고 다시 오려내고..... 날아오르는 섬 아래 코를 막은 채 뿌리를 달고 있다.

나의 작업실에도 마침내 ‘말없음표’가 동동 떠다니고 있다.

여섯 개의 섬 그림자가 유령처럼 동동 날아다니고 있다.

색은 빛 바래며, 시간은 어느 곁에 지나가고 있다.....

**끝이면서 시작 -‘틈’**

파편과 파편들 사이 ‘틈’, 땅 아래 묻혀있을 뿌리들을 바라본다. 꿀꺽 삼키어졌거나, 품고 있었던, 인제가 비집고 올라오는 씩. 그것은 ‘마침내 말없음표’.....

**Six dots, six isles: between April 16 and June 3, 2014**

Each isle is put over other one, making a slight difference.

There are cracks in them.

Fragments gather and form another isle.

I feel giddy with a myriad of stories and information.

The letters in the same size are mixed like dots that are tiny as sesame grains and appear as a mass hard to read. Fragments of words from which meaning is detached remain slightly dislocated like an attempt to put tougher excavated pieces, turning into another isle.

I pick up a few copies of newspaper delivered every morning and unfold them hurriedly, making a rustle. My eye falls on somewhere in the newspaper, passing by intended meaning arranged with some letters at some location in a certain size. I turn pages with wet fingers, making a rustle of paper. Although they are printed letters, they have their own territory, taking deep roots there. The letters occupy some spaces within their own ranks in accordance with their significance.

Advertisements suggest their weight with their size and location, as in occupied territories. Everyday articles catch my eyes, edi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to various standards. Innumerable tiny printed letters in the same size are placed on each space and the headlines conceived on the standards occupy the space, catching our eyes.

I reedit letters turning them into images, looking here and there in a copy of newspaper. One day I opened from the last page of a newspaper. I clipped articles I was interested in, moving my eyes at random. I shattered locations and fragmented meanings by cutting out headlines and phrases in the middle or from the corner. While working on producing the shadows of isles by mixing or overlapping scrapped images, I witnessed a colossal island on April 16, 2014. A huge disconnected island, a passenger ship carrying 475 passengers was slowly sinking before our eyes.

When we were all troubled about the situation conveyed to us through SNS in real time, it was perhaps a brief moment. A video report of the scene caught our eyes.

“Minister ooo comes.”

“So what?”

These bitter vocabularies uttered in extreme tension heat my heart.

Our deep-rooted protocol even in this extreme situation!

I was at a loss, as if I was on an island opposite another colossal island.

Murmuring I met at the end of language, ellipsis like tears washing out all words.

This murmuring and silence are things to which I had to come close to hear them.

Since April 16, 2014 I began cutting out newspaper articles on a sinking isle that was not actually an isle. This action continued to June 3, 2014 for 49 days. During this period I felt any coherent, grammatical sentences could not arouse sympathy any more in an extreme situation. Words were of no significance in such an extreme situation. Stammering and murmuring, linguistic fragments bursting out from the depth of my heart, tears, and unuttered ellipsis. How were these contrasted with sleek, well-honed, intended and strategic words?

I had consistently collected newspaper articles pertaining to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dvertising phrases and fragments of vocabularies. The ship was going down slowly and time was flowing as usual. I felt some cynical metaphors in everyday fortune telling and catchphrases in newspapers during this time. I decided to make isles wandering like shadows or specters within me and create old roots they revealed under the land with such vocabularies cut out and relevant newspaper articles and headlines collected. I intended to create six slightly different isles with fragments of newspaper articles cut out and put together again.

Six isles are an ellipsis.

Six isles are a metaphor for six dots.

Can those isles with fragments of vocabularies attached like roots fly?

Will they scatter again while flying up?

Will scattered fragments form another isle?

I dispersed wandering isles that left the sea as six dots or an ellipsis, asking those above questions again.

**Another ellipsis with 393 letters**

Clipping newspaper articles, I came to think about another ellipsis or “strategic ellipsis”. An effect of repetition; something is saved in our memories habitually while we don’t realize, something we memorize without doubt or that we come to believe in unconsciously while memorizing it. We perhaps regard an ellipsis as part of virtue while reciting directions and words of oath.

The sinking of our reason due to a repetition of such strategic directions.

We are in the late 50s. We were forced to memorize the Chapter of National Education and diverse words of oath printed

in textbooks. They are not printed in textbooks any more, but we can still recite them fluently. I reviewed such words of oath again. I researched them on the Internet, examined their transition, and gathered the fragments of vocabularies that have now partly disappeared.

I adjusted the space between the letters and edited the fragments of vocabularies quickly by using the command keys. I managed to pull myself, typing on the command keys, enter, enter, backspace, backspace. The command keys faithfully performed my command by my light tapping on them: they cut out, attached, deleted, mixed, and adjusted sizes with ease. I was one who controls the command keys and also who turned to a fragment of the vocabularies dispersed or gathered.

I partly deleted, cynically stressed, or unconsciously mixed such vocabularies from the words of oath by using the Hangeul editing program quite familiar to me. They were closely attached, pushed by one another, or overlapped with the adjustment of letter spacing, at times generating enormous waves. They looked like undulating waves or distorted images from a black-and-white TV.

There are special characters on the edges of a keyboard. I copied, attached innumerable faces and narrowed their spaces by using the special characters. The faces at last embraced one another, murmuring their words. The countless faces floating together glittered in the waves. Was this also an illusion? I rubbed my eyes again for a while.

Meaningless letters and fragments come out when a command key is mistakenly pressed. I bring clamp-shaped vowels and put them together. Innumerable clamps turn to a lattice barbed-wire fence. Was this also an illusion? I rubbed my eyes again for a while.

Spring came and went while clipping news articles. One day when I felt that the apricot blossoms bloomed particularly earlier than usual this year, I brought special character, or flowers. A myriad number of flowers scattered, fell down, or heaped up along with fragments of the vocabularies. Hundreds of thousands of flowers were heaped up like those on an altar. Was June 3 the 49th day after death? Was this also an illusion?

I dropped six dots on all images. They were drops of tears dripping down one by one. Was it also an illusion?

**Flags**

Anyangsaji, the venue of my exhibition is a temple site where people prayed for their hope and wishes. As we discovered this

temple site through an excavation of historical fragments, I made flags with something like written prayers with fragments of vocabularies, special characters at the edge of a keyboard, faces, flowers, and bombs. I listen to murmuring sounds of a flag in the wind with my body close to a place expressed only with an “ellipsis”. I listen carefully to such murmuring. The six ellipses, language before language drop down as drops of tears and delete the plethora of flashy images (words), shaking minutely.

**Another flag**

A video image is another flag in modern times.

I confirm the shaking of dimly glittering pixels, keeping my body close to six tiny scenes.

In the end, six images of ellipses slowly scatter and mix in the frame decorated with the phoenix pattern.

An ellipsis drips down like drops of water. The drops spread and delete words that have turned to images.

The 6 inch and 10 inch monitors display the same scene with different contents that repetitively appear and disappear slowly or quickly as in our repetitive daily lives.

Shown on the side wall of the venue are the frames with the phoenix series printed in faded colors showing still images in a group like enlarged color pixels.

I see images and hear sounds, wearing headphones. The fragments of sounds I gathered near my studio from April 16 to June 3, 2014 pass by with images.

The sound of a hydraulic shovel digging into the ground, the sound of cutting the bricks, the sounds of a KTX train passing at a high speed and a truck, and droning voices are blended with the radio in my studio.

Amid the fragments of sounds, I disassemble isles alone by adding and clipping out again.

An ellipsis floats in my studio.

The shadows of six isles fly like specters.

Colors are faded and time slips by.

**Ending and also beginning-Crack**

A “crack” between fragments. I look at roots to be buried under the ground.

The sprout devoured or embraced by a tree will come out sometime.

That is *In the End*, “*Ellipsis*”(…….)

〈마침내 말없음표(……)〉에 부쳐  
김인선 (윌링앤딜링 대표)

안양 김중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이영희 작가의 개인 전 〈마침내 말없음표(……)〉는 과거를 되짚게 되는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 전시장은 시간의 축, 즉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발생한 간극, 사회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의 틈을 들여다보는 매개 공간으로 이해된다. 작가는 1968년 선포되어 전 국민적인 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된 국민교육헌장(1994년 사실상 폐지되었고 2003년 공식적으로 무효화 된)과 12개월 동안 시흥 일대의 농경 지역을 관찰하면서 진행한 프로젝트 「12」(2012),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에서 사용되어 온 거대한 깃발을 사라진 전시와 무명의 작가들을 위한 기념비로 재해석한 「두레기에서」(1994) 등 이전 작업의 소재에서 차용한 신작을 통해 자신의 활동 영역 속 과거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또 다른 형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영희 작가의 마스터 카탈로그를 살펴보면 1990년대의 초기 작업에서부터 이미 파편들과 사라져 가는 기억을 수집하고 환기하는 과정을 표현해 왔던 작가의 작업 방향이 오늘날의 작업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말없음표(……)〉에 전시된 작품은 정적이고 평면적이면서 회고적이다. 그래서 2014년에 제작된 이영희 작가의 신작들은 예전의 작업을 하나씩 박제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이들은 작가 자신의 지난 작업을 되새김질하는 행위의 결과물들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집단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개개인의 불안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게 된다.

콜라주 방식으로 제작된 평면 이미지 「여섯 개의 섬 여섯 개의 점」(2014)은 이전 왕겨를 사용했던 설치 작업 「틈」 시리즈(2005-2013)를 재현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작업 형식은 공간 설치작업으로서 왕겨, 그리고 각종 낚사 등을 재료로 사용했었다. 당시에는 전시장의 바닥과 벽 모든 공간을 활용하였다. 대지는 파편화되 공간 속을 유연하게 배회했고, 그 조각들 사이의 간극은 주변 환경 공간과 그 속에서 움직이는 관람객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관람객의 움직임은 현재의 시간성을 환기시키면서 다시 주변 환경을 완성하고 공간적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시장에 놓인 물적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게 하였다. 하지만 「여섯 개의 섬 여섯 개의 점」은 캔버스 프레임 속에서 이제선 설치 작업이 아닌 기록 내지 흔적의 형식으로 변해있다. 「틈」 시리즈 설치 작업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캔버스 속의 이미지들은 마치 이전 작업의 그림자와 같은 모

습으로, 과거의 실물들인 즉물적 질감과 각종 재료가 이제 텍스트로 대체되고 있다. 이 텍스트 덩어리들은 작가의 눈길을 끈 기사들을 오려서 모아놓은 신문들을 이어 붙인 것이다. 스크랩하는 습관이 몸 에 밴 세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작가가 모아 놓은 신문 기사들은 이제 그만 텍스트 터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반문해야 할 정도로 작업실 한구석에 쌓여가고 있다. 오려진 기사들, 더는 읽어내기 힘든 텍스트 터미는 캔버스 위에서 ‘섬’의 실루엣을 형성한다. 이전 설치 작업에서 땅이 뿔뿔히 올라가듯 표현되었던 뿌리 부분은 이제 텍스트의 섬, 혹은 문장 터미로부터 속절없이 넘쳐 쏟아져 내리는 찌꺼기와 같아 보인다. 작가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구해지고, 전달되고, 왜곡되고 있는 현상과 그 실체의 가벼움 그리고 연합함을 직시하고 있다.

사실 신문 지상의 사건 사고 기사 수집이 일상처럼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일어난 2014년 4월 16일의 참사에 대한 큰 충격은 작가로 하여금 6월 3일까지, 49일 동안 쏟아지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기사를 모으며 격한 감정 앞에서 무용해지는 글의 무더기들을 모아서 여섯 개의 섬을 만들어 내게 하였다. 이 섬들은 다른 영상 작업에서 화면 정 중앙으로부터 서서히 번져나가는 검은 점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또 다른 작업에서는 감정에 짓눌린 텍스트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여섯 개의 점이 눈물에 번진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눈물은 작가 노트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마침내 드러나는 격한 감정의 뿔여뼀이고 고통하게 울리는 여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이다.

영상 작업 「마침내 말없음표」는 여섯 개의 미디어 화면으로 구성된다. 정부 문서의 테두리에 그려진 봉황새가 등장하는 화면에서 텍스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작가가 임의 배치한 특수문자들이다. 이 영상 작업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88장의 리소그라프Lithograph인쇄로 제작되어 각 장마다 다른 색채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침내 말없음표 - 봉황시리즈」(2014)의 연장선에 있다. 이영희 작가는 어릴 적 열심히 외워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의 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봉황 장식 문양을 사용해 그 당시의 기억을 불러내고 있지만, 원래의 글자들이 사라지고 한글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인 특수문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화면은 의미 없는 기호가 떠돌고 이들은 모이면서 충돌하다가 흩어지며 파열음을 낸다. 「마침내 말없음표 - 봉황시리즈」는 봉황으로 장식된 문서들이 깨진 디지털 문서의 픽셀들처럼 보이게 벽면에 배치

되었는데 과거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기 전 화면조정 패턴처럼 보이기도 한다. 디지털 영상과 종이에 출력된 인쇄물이 설치된 전시장에서 작가와 같은 세대의 관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릴 적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을 떠올리겠지만 어린 세대에게는 마치 수많은 종류의 게임 중 하나인 양 잊힐 뿐이리라.

한편 초기 작업이었던, 90년대 중반의 버려지는 전시홍보 현수막들로 만든 「두레기에서」 역시 이번 전시에서 설치작업 「마침내 말없음표 - 깃발시리즈」(2014)를 통해 각종 어휘의 파편들 - 국민교육헌장의 393글자의 파편들, 맹세문, 축문, 특수기호 등-의 이미지가 들어간 4m 길이의 깃발들로 재현된다. 농악 놀이 때 등장했던 두레기는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받았던 물건이다. 오래될수록 그 깃발의 연배에 대한 예의로 호형호제하였고 놀이 중에는 기를 빼앗아 승패를 가르기도 하였다. 이는 개인이 문쳐서 만든 한 집단의 정체성과 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작가가 만들어낸 거대한 깃발들은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전부터 묵혀있던 정지된 시간을 보여 주듯이 원초의 기능을 제거한 채 정적만이 맴도는 엄숙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걸려있다. 그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흐느끼듯 양옆에 달린 장식을 조금씩 떨고 있다. 시끄럽게 펄럭이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원을 그리고 마을 어귀를 돌던 깃발의 모습은 이 공간 속에서는 먼 기억 속에 자리한다. 그리고 깃발 표면에서 떨किन 눈물의 흔적은 그들이 품고 있는 한과 애도를 조용히 뿜어내고 있는 듯하다.

이영희 작가의 개인전 〈마침내 말없음표(……)〉는 전반적으로 현대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정보와 그를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감정과 집단적 감정의 괴리를 드러내며 이를 직시하게 하고 있다. 정보는 구전, 문장, 교육교재, TV, 인터넷뉴스, SNS 등 과거나 현재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달된다. 우리는 전해지는 정보에 의하여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집단적 동의에 찬성하지 않는 다른 정보를 두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한다. 최초의 정보는 더 자극적인 정보에 의해 가려지거나 잊히고 수면으로 떠오른 또 다른 정보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 반복적인 반응은 일상이 되었다. 이영희 작가는 스스로 이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배회하는 텍스트를 모아서 만들어진 형상들 끝에서 더 이상의 언어보다는 말없음표를 차라리 선택하고 있다. 그는 북받치는 감정과 미처 다하지 못하고 묻혀버린 슬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웅얼거림 속에서 생성되는 침묵과 눈물 속에 품기로 한다.

On the occasion of the exhibition, Final Taciturnity(…….)  
Kim In-sun, Space Willing N Dealing Director

Final Taciturnity (2014), the solo exhibition of artist Lee Younghee held at the Kimchungup Museum in Anyang is full of the images harking back to the past. The venue of her exhibition is seen as an intermediate space to look into the gap between past and present, society and individual. In her new works whose motifs were appropriated from her previous pieces, she newly reinterprets her past activities in another form, looking back on the past. Such works include her work employing the text from the Chapter of National Education proclaimed in 1968 and used for the ideological education of all people, the project *12 (2012)* that consisted of her own installations, drawings, and photographs the artist worked on while observing the rural area of Siheung for 12 months and *From farmer's flag (1994)* in which she reinterpreted a huge flag used to wish for a good harvest as a monument for disappeared exhibitions and unknown artists.

If reviewing her exhibition catalog published in 2011 we come to realize that her work from the early 1990s, that expressed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recollecting disappearing fragments and memories, is not much different from her work attitude today. Works on display at Final Taciturnity are static, flat, and retrospective. Her new pieces produced in 2014 seem to be a process of stuffing her previous works. These works are presented as the results of her actions to recall her past work, while arousing viewers' collective nostalgia. In this process we can discover our own self-portraits and look into each individual's uneasy emotion.

*Six Isles, Six Dots (2014)* displaying two-dimensional images produced in collage is a representation of her previous installation series *Crack (2005-2013)*, space installation work using rice husks and twisted thread. At that time she made use of all spaces of the gallery including floor and wall. In this series the land wandered, fragmented space and the gaps between the fragments were replaced with the viewers moving in the surrounding spaces. The movement of the viewers played the role of disclosing physical beings in the venue, harking back to present temporality and working to complete their surroundings and spatial gaps.

In *Six Isles, Six Dots* however, she demonstrates some records and traces in the canvas frame. The images in the canvas look like the shadows of her previous work. In this work realistic texture

and various materials in her previous work are replaced with texts. The lumps of these texts are products of the joining of newspaper articles she clipped out from the ones that caught her eyes. The newspaper articles she cut out are piled up at a corner of her studio so we may ask if they have any meaning more than text. The lumps of texts or articles cut out form the silhouette of an “isle” on the canvas. The roots with soil that were revealed from the ground in her previous installations look like the isles of texts or the residues poured down from the lumps of texts. Lee seems to face a phenomenon that information we contact is so easily produced, obtained, delivered, and distorted, and its entity's lightness and fragility.

While collecting newspaper articles on diverse incidents and accidents as part of her everyday life, she was tremendously shocked by a grave calamity that occurred on April 16, 2014. Inspired by this shocking disaster, the sinking of the MV Sewol, she produced six isles with the lumps of texts she felt of no use before her vehement emotion, carefully listening to the information which poured down for 49 days until June 3 and gathering relevant news articles. These isles turn into the black dots spreading from the dead center of her video work, or spread tears in another work where the text suppressed by emotion passes away gradually. The tear is a visual device for the artist to express her strong emotion and serene lingering resonance visually.

The video work of *In the End, Ellipsis (2014)* consists of six scenes. What takes up the place where text should be in a government document, with the edge of the phoenix pattern, are special characters she arranged arbitrarily. The images in this video work are an extension of *In the End, Ellipsis-Phoenix series (2014)* showcasing 88 different images and colors printed in lithograph. Lee recollects memories of the time she had to learn by heart the Chapter of National Education by adopting the phoenix pattern most similar to that of the Chart, but its text is replaced with special characters she appropriated from the Hangeul word program. In the scene meaningless symbols float, gather, collide, and scatter, making explosives.

In *In the End, Ellipsis-Phoenix series*, documents with 88 images printed in lithography and decked with the phoenix pattern look like broken digital pixels or screen control patterns used

in past TV broadcasting. In the venue displaying digital videos and paper printing materials, the viewers of the same generation as the artist perhaps hark back to their childhood when they memorized the Chapter of National Education while younger generations may recollect a sort of computer game. In *In the End, Ellipsis-Flag Series (2014)* her early work *From Famer's Flag Series* in which she interwove the strips earned by tearing banners used for the promotional purpose of some exhibitions in the mid-1990s, is reproduced into the flags with diverse fragments of vocabularies including parts of 393 letters, words of oath, written prayers, and special characters. A communal labor flag used at a farmer's music performance was an item treated as a personified being. People considered the flag a brother or a friend as the expression of their respect to the flag. The flag was also used to choose victory and defeat. The flag was a symbol of a group's identity and power. However, the colossal flags she made are hung in a solemn, tranquil atmosphere in a gloomy space as if disclosing long-held halted time. They shake the decorations on their sides as if weeping in a tranquil, gloomy mood. The flags that drew a circle with villagers and fluttered in the wind are placed in the space of this work as distant memories. The trail of tears left on their surfaces seems to exude sentiment and condolence they bear in quietude.

This exhibition Final Taciturnity(…….) enables us to face the gap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emotion disclosed in the images of contemporary people who accept information prevailing in a contemporary society. Information has been conveyed in diverse ways and mediums such as oral transmission, sentences, educational materials, TVs, Internet news, and SNS.

Our emotion and behavior are influenced by such information transmitted, reacting diversely to information that is not collectively consented. Initial information is often concealed by more provocative information. These recurring reactions have become part of our daily lives. Lee comments on ways of reminiscing and remembering them. She has chosen an ellipsis for the images created through the gathering of wandering texts, replacing words with the ellipsis. She embraces surging feelings and numerous untold narratives in silence and tears generated from countless murmurings.



이영희 Lee Younghee  
youngheelee.com

학력

**2000** 세종대학교 대학원 졸업(미술학)  
**198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수료(미술교육)  
**1984** 덕성여자대학교 졸업(응용미술)  
**1980** 서울교육대학 졸업

개인전

**2014**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마침내 말없음표(……)〉, 김중업박물관, 안양  
**2013** 〈툼 : 12〉, 갤러리 비원, 서울  
〈툼 : 12〉, 사진전 및 출판 기념회, 어반소울, 서울  
**2011** 〈툼〉,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5** 〈툼 : 생명〉,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3** 〈툼 : 생명〉,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1998** 〈발굴 : 섬〉, 토탈미술관, 경기도 장흥  
**1997** 〈발굴 : 툼〉, 관훈갤러리, 서울  
**1995** 〈툼〉, 갤러리 티, 서울

단체전

**2001** 〈20인의 섬유조형전〉, 우덕갤러리, 서울  
〈서울섬유미술제〉, 우덕갤러리, 서울  
**2000** 〈짚물아트전〉, 부천시민회관, 부천  
**1998** 〈겨울대성리전〉, 대성리  
〈죽산국제예술제〉, 죽산  
〈서울섬유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7** 〈4회 문양의 탐색〉, 관훈갤러리, 서울  
**1996** 〈요르단 국왕초청 특별전〉, 로얄컬처센터, 아만, 요르단  
〈서울섬유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조각의 비약전〉, 코스모스갤러리, 서울  
〈3회 문양의 탐색〉, 관훈갤러리, 서울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국립미술관, 몽골  
**1995** 〈한국작가초대전〉, 오슬랜드컨벤션미술관,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독립 4주년 기념 타쉬켄트전〉, 타쉬켄트예술의 전당, 우즈베키스탄  
〈설악국제비엔 날레〉, 설악프라자패밀리타운, 속초  
〈윤미회전〉, 덕원미술관, 서울  
**1994** 〈제 4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갤러리 신미술 개관 초대전〉, 갤러리신미술, 서울  
〈중국 사진성장 한국작가초대전〉, 사진성미술관, 중국  
〈제 3회 종이미술전〉 은상, 예술의전당, 서울  
〈제 12회 신미술대전〉,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설악자연미술제〉, 설악리조트, 속초  
〈문양의 탐색〉, 운현궁미술관, 서울  
〈공간과 공간 : 소통의 회복전〉, 소나무갤러리, 서울  
〈제 3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1993** 〈11회 신미술대전〉,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우즈베헌화국 독립 2주년기념 한국작가초대전〉, 타쉬켄트국립예술의전당, 우즈베키스탄  
**1992** 〈제 5회 섬유조형의 장〉,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1989** 〈제 4회 섬유조형의 장〉, 시립미술관, 서울  
**1987** 〈제 3회 섬유조형의 장〉, 경인미술관, 서울

기타

**1998-1995** 프로젝트 K2LC

수상 & 선정

**2014** 안양문화예술재단, Line up Artists in ANYANG  
제 3회 한국종이예술전 은상,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출판

**2012** 툼 Crack : 12, 총 178페이지  
(ISBN 978-89-966011-2-8)  
**2011** Lee Younghee, 마스터 카탈로그, 총 168페이지  
(ISBN 9788996601111 03600)

EDUCATION

**2000** Sejong University  
**1988**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Duksung Women’s University  
**1980**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LO EXHIBITION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 Final Taciturnity, Kimchungup Museum, Anyang, Korea  
**2013** Crack : 12, b’One Gallery, Seoul  
Crack : 12, Photo and Publication, Urban Soul, Seoul  
**2011** Crack, Gana Art Space, Seoul  
**2005** Crack : Life, Gana Art Space, Seoul  
**2003** Crack : Life, Gana Art Space, Seoul  
**1998** Excavation : Island, Total Open-Air Art Museum, Jang-heung  
**1997** Excavation : Crack, Kwanhoon Gallery, Seoul  
**1995** Evacuation, Gallery Teo, Seoul

GROUP EXHIBITION

**2001** Fiber Art by Twenty Artists, Wooduck Gallery, Seoul  
Fiber Art, Wooduck Gallery, Seoul  
**2000** Straw and Grass Art, Puchon Municipal Gallery  
**1998** Daesungri Art Project, Daesungri  
Seoul Fiber Art, Seoul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Art (SeMA), Seoul  
**1997** Search for Koren Design, Kwanhun Gallery, Seoul  
**1996** Royal Cultural Center, Amman, Jordan

Seoul Fiber Art, Seoul Museum of Art (SeMA), Seoul  
Korean Sculpture Flight , Seoul Cosmos Gallery  
Search for Korean Design, UnHyunGoong Galley, Seoul  
Ulanbatore National Gallery, Mongol  
**1995** Invitational Exhibition for Koren Artists, Oakland Convention Gallery, New Zealand  
the 4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of Uzbekistan, National Art Center, Tashkent  
Solrak International Bienale, Sorak Resortel, Sokcho  
**1994** the 4th Extension of Consciousness, Seoul Art Center, Seoul  
Invitational Art Exhibition, Shin Misool Gallery, Seoul  
Invitational Exhibition for Korean Artists by Governor of Zechuan Province Gallery  
the 12th New Art Exhibition,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Seoul  
Solrak Art Exhibition, Sorak Resort, Sokcho  
Search for Korea Design, Unhyungoong Gallery, Seoul  
**1993** Space and Space , Sonamoo Gallery, Seoul  
the 3rd Extension of Consciousness Exhibition. Seoul Art Center, Seoul  
the 1st New Art Exhibition,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Seoul  
the Invitational Exhibition for the 2nd Anniversary of Independence of Uzbekistan, National Art Center, Tashkent  
**1992** the 5th Field of Textile Plastic, Tore Art Space Gallery, Seoul  
**1989** the 4th Field of Textile Plastic, Seoul Municipal Art Center, Seoul  
**1987** the 3rd Field of Textile Plastic, Kyungin Gallery, Seoul

PROJECT

**1998-1995** K2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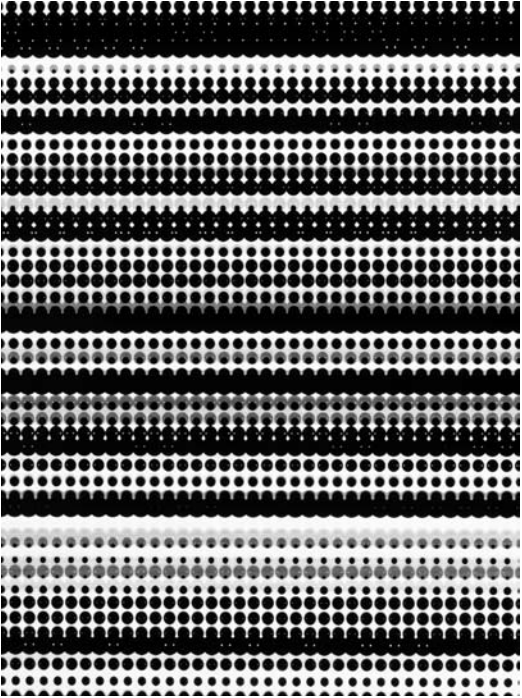
AWARD / SELECTION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Korea  
Silver Prize at the 3rd Korean Paper Art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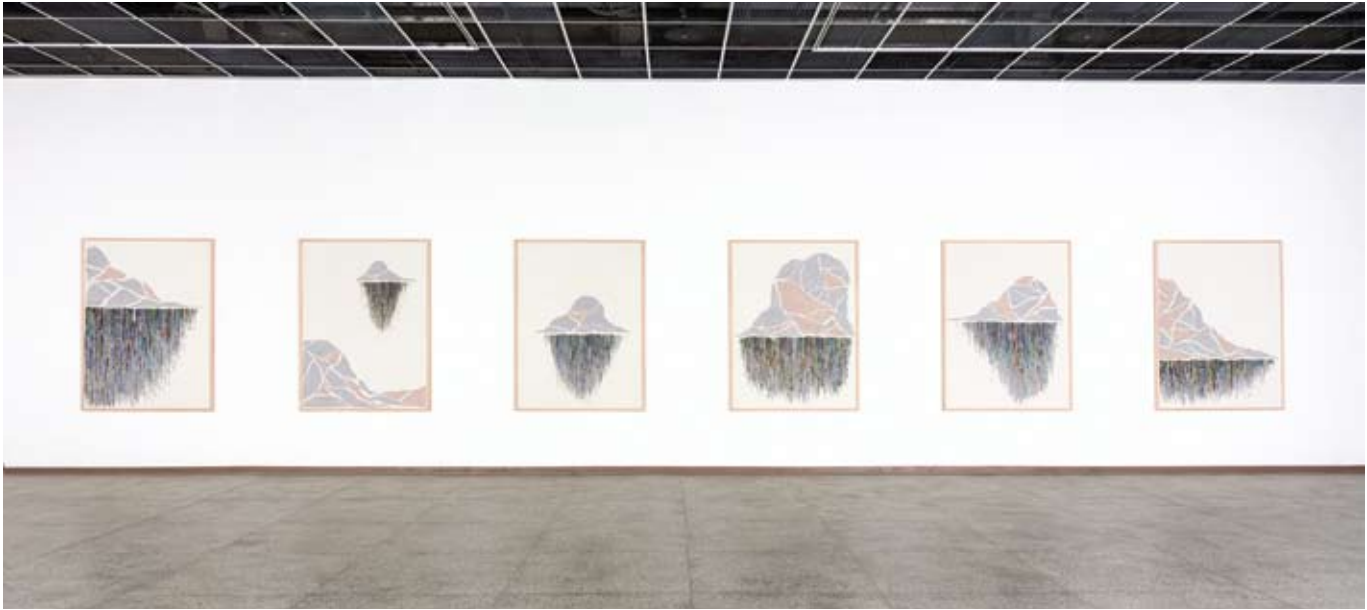
**2012** Crack : 12, 178 pages  
(ISBN 978-89-966011-2-8)  
**2011** Lee Younghee, Master catalogues, 168 pages  
(ISBN 978-89-966011-2-8)

중견작가 이영희 \_ 마침내 말없음표(……)



마침내 말없음표, 2014 영상 부분 *In the End, Ellipsis, 2014* Video cut





여섯 개의 점 여섯 개의 섬 (2014년 4월 16일~ 6월 3일 사이), 2014  
천 위에 신문 종이 콜라주  
각 110 x 147cm / 6개의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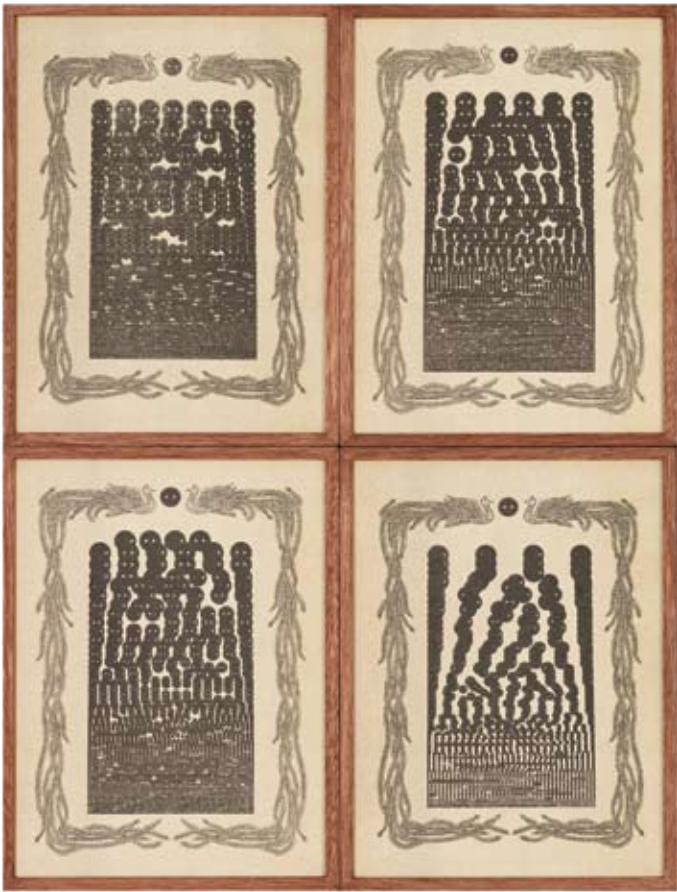
—

*Six Isles, Six Dots (from April 6, 2014 to June 3, 2014*  
Collage of newspaper cut outs  
each 110 x 147cm (6 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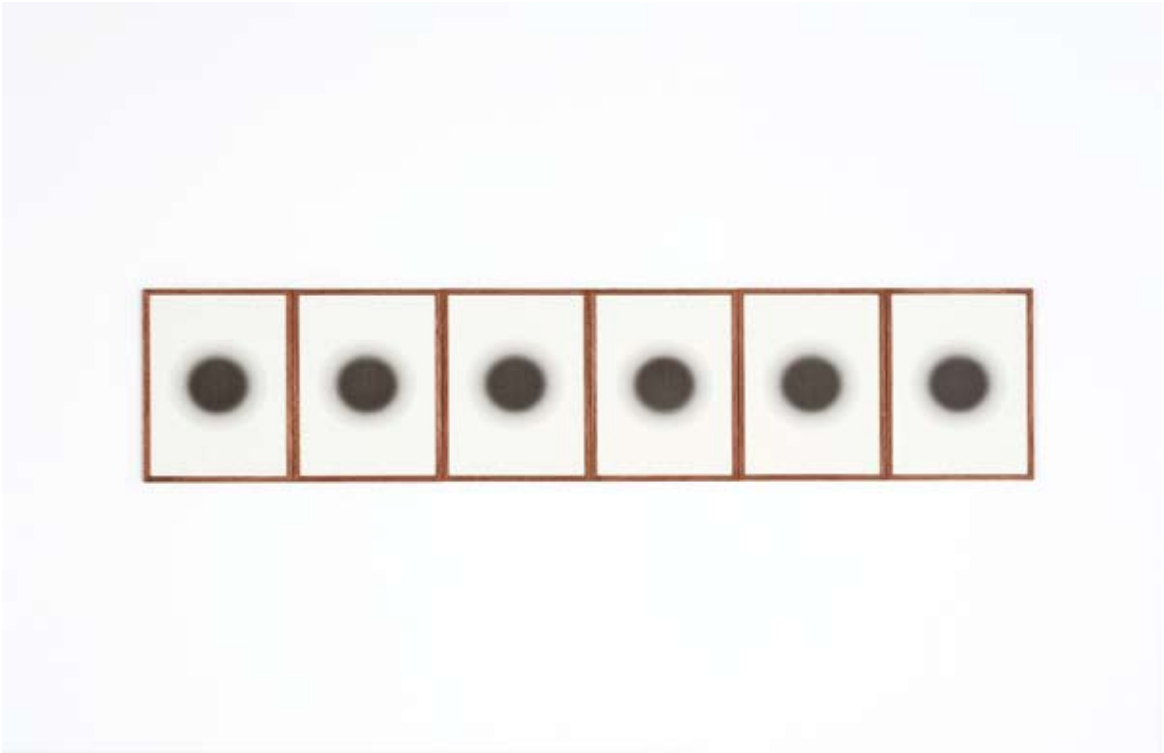
마침내 말없음표 - 봉황 시리즈, 2014  
종이에 리소 인쇄  
각 30 x 42cm / 88개의 액자  
가변설치

*In the End, Ellipsis-Phoenix Series, 2014*  
Lithograph  
each 30x42cm / 88 pieces  
Dimensions variable



마침내 말없음표 - 봉황 시리즈, 2014  
부분

*In the End, Ellipsis-Phoenix Series, 2014*  
Detail



말없음표 - 여섯 개의 점, 2014  
종이에 리소 인쇄  
각 30 x 42cm / 6개의 액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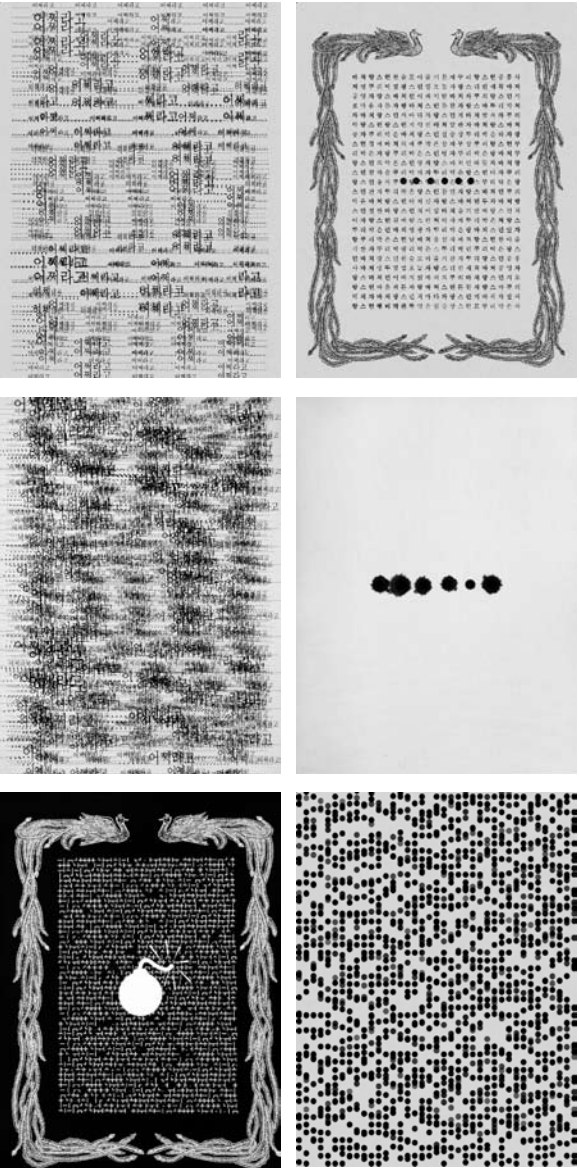
*In the End, Ellipsis-Six Dots (from April 6, 2014 to June 3, 2014), 2014*  
Lithograph  
each 30 x 42cm / 6 pieces





마침내 말없음표, 2014  
6개의 영상 모니터 설치  
10분 26초

—  
*In the End, Ellipsis, 2014*  
6 tablet installation video,  
10 min. 26 sec



마침내 말없음표, 2014  
영상 부분

—  
*In the End, Ellipsis, 2014*  
Video cut





마침내 말없음표 – 깃발시리즈, 2014  
실사출력, 양면 바느질  
가변설치

*In the End, Ellipsis-Flag Series, 2014*  
Printed banner, backstitch  
Dimensions variable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은 지역 청년작가를 발굴·육성하고 중견작가의 사기 진작 및 창작욕 고취를 위하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마련한 첫 번째 시각예술 지원사업의 결과이다. 프로젝트 부제인 ‘Line up Artists in ANYANG’은 안양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작가들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선발진용’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수한 작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미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올해 공모사업은 청년작가 뿐 아니라 중견작가를 대상으로 하여 중견작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양 미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소수의 작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의 유사한 지원사업과 차별화 하고자 하였다. 2014년 2월 28일 부터 3월 21일까지 22일간의 공모 기간 동안 총 46명의 작가가 지원하였고, 심사위원 김종길(현 경기문화재단 정책개발팀장 및 미술평론가), 김진엽(현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 및 미술평론가), 최태만(현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미술평론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청년작가 박재환, 중견작가 이영희 총 2명의 작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청년작가 1명, 중견작가 2명을 선정하려던 당초에 계획은 심사과정에서 불발되었으나 중견작가에게 더 많은 창작지원금을 수여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 해 온 중견 작가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일 수 있겠다. 또한 이번 공모 심사의 결과는 ‘지역’ 미술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안양’의 미술이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미적 실험이나 도전이라는, 예술에 있어 매우 진부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공모선정 작가인 이영희, 박재환 작가에게는 창작지원

금이 수여되었으며 여름 동안 치열한 창작과정을 거쳐 만든 결과물들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의 기회가 주어졌다. 전시는 〈안양연구작가발굴지원전-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이라는 타이틀로 2014년 9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33일간 안양예술공원 내 위치한 김중업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영희 작가는 안양사지관 2층 전시실에서 〈마침내 말없음표(……)〉라는 부제로 평면, 영상, 설치 등 총 5건 118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작가가 그동안 침착해온 ‘틈’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말없음표(……)’가 갖는 언어의 침묵과 텍스트의 행간에 주목하였다. 박재환 작가는 문화누리관 1층 전시실에서 〈바퀴벌레〉라는 부제로 설치 작품 총 7점을 출품했으며,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의 참다운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는 깨달음을 조형화 하였다.

두 작가 모두 시간적·물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작을 통해 중견작가의 원숙한 창작세계와 청년작가의 실험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와 도록은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앞으로 두 작가가 걸어 나갈 예술적 여정의 이정표로서, 새로운 미적 실험과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역작가를 발굴하여 창작을 지원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안양의 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이번 한 번의 전시로 이루어질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첫 해이기에 분리된 전시 공간의 문제라던가, 지원 시스템의 문제, 공유의 문제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준 두 작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좋은 성과가 지역미술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is the result of the first support project for the visual arts the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has presented, aiming to discover and foster local young artists and to encourage and inspire mid-career artists’ creativity. The project subtitle Line up Artists in ANYANG refers to the “Line Up of the Artists” chosen through a competition out of Anyang-based artists, standing for the growth of local art that can be sustainable through constant discovery and support of outstanding artists.

The objects of selection in the competition this year included not only young artists but also mid-career artists, reflecting a feature of the Anyang art scene having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mid-career artists. We intended to distinguish this project from the support projects offered in other regions by concentrating on providing support to a few artists. 46 artists applied to the competition during the 22-day application period from February 28 to March 21, 2014. Young artist Park Jaehwan and experienced artist Lee Younghee have been finally selected through a strict, impartial screening by judges Kim Jonggil (presentl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olicy Development Team Chief and art critic), Kim Jinyeop (presently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Curatorial Department Head and art critic), and Choi Taeman (presently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professor and art critic). The initial plan to select one young artist and two leading artists misfired in the process of screening, but more grants for creation could be given to a mid-career artist as a token of respect to the mid-career artist who had worked consistently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result of this competition served as momentum to make us realize again the banal, yet fundamental principle that Anyang art has to pursue new aesthetic experiments and challenges despite its claims for local art.

Support funds were granted to the selected artists, Lee Younghee and Park Jaehwan and the two artis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for an exhibition to display the products of their intense efforts during the summer season. The exhibition titled Line up Artists in ANYANG was held for 33 days from September 26 through November 2, 2014 at Kimchungup Museum in the precincts of Anyang Art Park.

Artist Lee Younghee displayed 118 pieces of five two-dimensional, video, and installation works at the gallery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Anyangsaji Building under the subtitle, Final Taciturnity(……). In this exhibition she paid attention to silence in language and space between the lines represented by “ellipsis” as an extension of the theme “Interstice” she had pursued. Artist Park Jaehwan exhibited seven installations under the subtitle The Cockroach at the gallery on the first floor of the Munhwanuri Building, giving form to his illumination that all phenomena of the world and the true nature of beings are in a state of flux.

The two artists demonstrated a leading artist’s mature world and a young artist’s experimental spirit through their new works despite temporal and material restrictions. The exhibition is an outgrowth of their endeavors and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ir new aesthetic experiments and challenges as a milestone for their artistic journey.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project: to vitalize Anyang’s art culture by discovering local artists, sponsoring their creation and sharing their products with citizens through this one-time exhibition. There was much to be desired in this exhibition, such as the problems of exhibition space, support systems, and sharing the artworks. I would like to offer my thanks to the two artists for producing quality products despite such difficulties, wishing that such desirable accomplishments could be a booster for local art.

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전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총괄	노재천
기획	박은수
발행인	이필운
발행일	2014.12.7
발행처	(재)안양문화예술재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T.031-687-0500 F.031-689-5000 www.ayac.or.kr
저작권	글: © 김인선, 박재환, 박은수, 이영희, 정현 사진: © (재)안양문화예술재단, 박재환, 이영희
번역	아트앤틱스트
사진	가비스튜디오
편집 및 디자인	스튜디오 비트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6, 1069호 www.vitrin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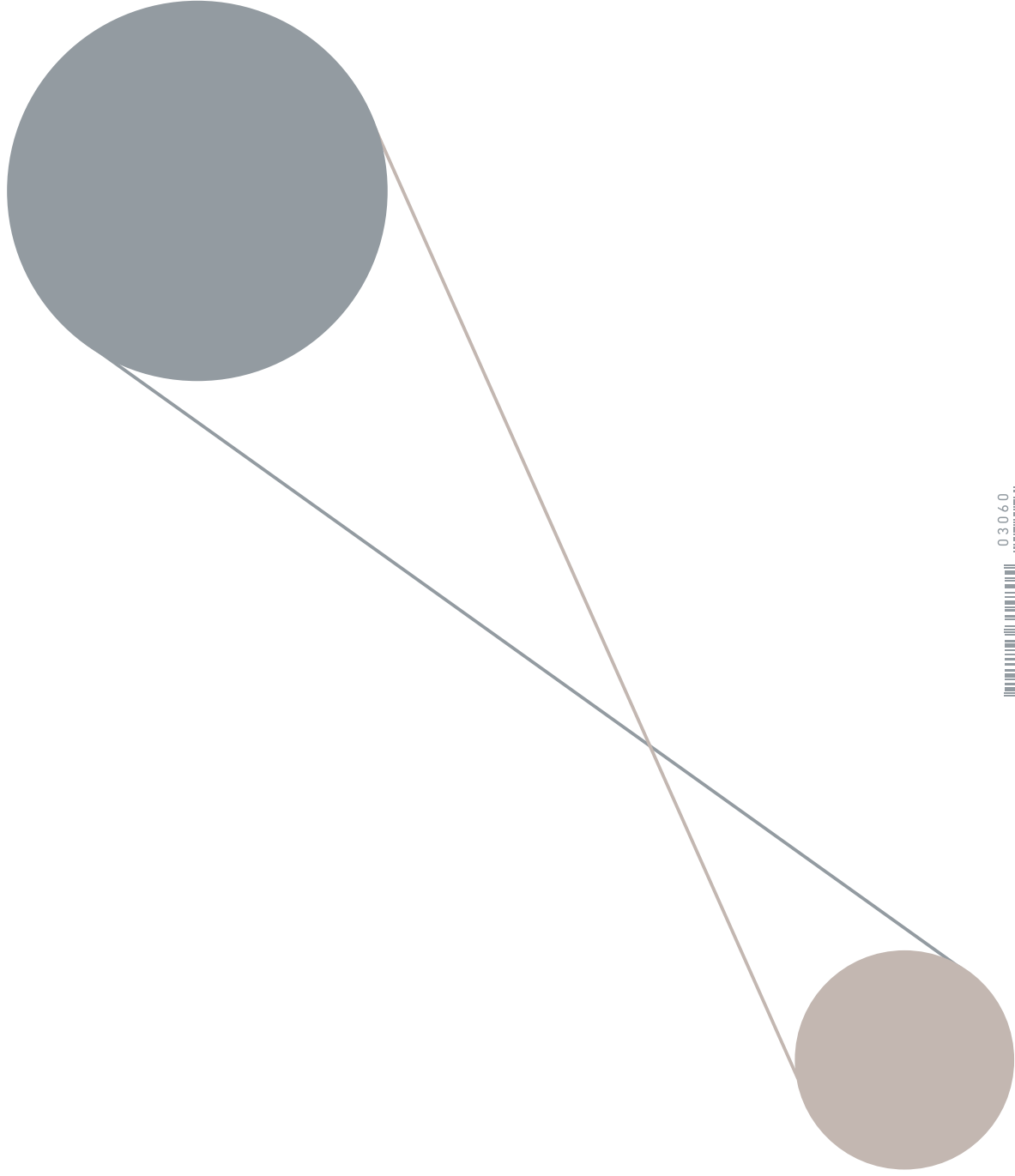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34528)

이 도록에 수록된 글과 작품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form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안양연고작가발굴지원전  
2014 Line up Artists in ANYANG



ISBN 979-11-953148-0-5